코로나 불황에도 광주·전남 건설업 호황

지난해 공사액 20조원 넘어서
전년비 15% 가까이 늘어
전국 254조원…0.2% 증가

지난해 광주·전남 건설 공사액이 처음 20조원을 넘겼다. 국내 공사액이 전년보다 0.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광주·전남은 15% 가량 늘어나면서 지역 건설업 호황을 반영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건설공사액(기성액)은 광주 5조5070억원·전남 17조680억원 등 22조5750억원으로, 전년보다 14.6%(2조8822억원)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광주·전남 공사액은 14조6442억원에서 22조5750억원으로, 54.2%(8조원) 증가했다. 광주는 85.0%(2조9769억원→5조5070억원) 증가했고, 전남은 46.3%(11조6673억원→17조68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 전체 공사액은 264조9800억원으로, 전년보다 0.2%(3150억원) 증가했다. 해외 공사액은 24조원으로 18.1%(-5조원) 감소했다.

광주·전남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으며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22.6%)과 대구(21.9%)에 이어 전남(14.7%), 광주(14.6%), 대전(11.7%)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공사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전체 공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9%·전남 5.9%로, 전년보다 각각 0.3%포인트,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기(78조원)와 서울·인천 등 수도권 공사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4.8%에 달했다.

전년보다 공사액이 줄어든 지역은 제주(-18.5%), 세종(-16.3%), 충북(-10.9%) 등 8개 시·도이다.

지난해에는 본사를 광주·전남에 둔 건설업체가 471개(5.6%) 늘어난 8826개(광주 2620개·전남 6206개)로 집계됐다.

전국 건설업체는 7만8849개에서 8만2567개로 4.7%(3718개) 증가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업체는 2만9432개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업체의 본사 소재지에서의 공사액 비중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전국 평균을 밑돌았지만, 전문업종 건설업은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지역 종합건설업 본사 소재지별 건설공사액 비중은 광주 27.8%·전남 39.8%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광주는 3.7%포인트, 전남은 2.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전국 평균 비중은 42.9%로 나타났고, 서울 소재지 공사액 비중이 69.1%로 가장 많았다.

전남은 전국에서 7번째, 광주는 12번째로 비교적 비중이 적었다.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업 등 전문 건설업의 소재지 공사액 비중은 광주 52.1%·전남 53.5%로, 전국 평균(46.0%)을 넘겼다.

상위 100대 기업의 건설계약액(129조원)은 1년 전보다 28.8%(29조원) 늘면서 전체 건설계약액 중 44.9%를 차지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건설공사액(82조원)은 1년 전보다 4조원(-5.0%) 줄어 전체 건설공사액 중 28.3%를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민간 특공에 추첨제 도입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에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다만,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연합뉴스

효성은 국내 최대 수소 산업 전시회인 '수소모빌리티+쇼'에 참가해 부스를 마련한 뒤 '미리 보는 액화수소 시대'를 주제로 전시를 선보였다. 〈효성 제공〉

효성, 액화수소 시대 미래상 선 보인다

킨텍스 수소산업 전시회 참가
탄소섬유 연료탱크 등도 전시

효성은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수소 산업 전시회인 '수소모빌리티+쇼'에 참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은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를 중심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3D영상과 전시모형 등을 통해 액화수소 시대의 미래상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탄소섬유를 활용한 수소차용 연료탱크와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 설비인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기 모형도 전시하는 등 효성의 전방위적인 수소 밸류체인을 강조했다.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15개 기업 최고경영진이 참석하는 수소기업협의체 'Korea H2 Business Summit' 출범 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부회장은 "효성은 수소 생산과 공급, 저장, 활용 등 수소 생태계를 망라하고 있다"면서 "향후 배터리와 연료전지, 모빌리티 차체 등 미래 에너지 분야 소재 및 부품 사업에도 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회 직후 조 부회장은 효성 부스를 비롯해 전시회 곳곳을 참관하며 수소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했다. 또한 국내외 수소 전문가 및 기업들과 만나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효성은 지난 6월 '수소 기술로 탄소중립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3년까지 린데그룹과 함께 울산 용연공장 부지에 연산 1만3000t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전환 기술)를 통한 블루수소와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장수사진에 돋보기 지원…나주 찾은 전남농협 '농업인 행복버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맨 오른쪽)와 나주 공산농협이 8일 공산농협 대회의실에서 고령 농업인 200여 명에게 장수사진을 찍어주고 검안·돋보기를 지원하는 '농업인 행복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묻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일 '광주 에이스페어' 간담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0일 종합콘텐츠 전시회 '광주 에이스페어'에 참가하며 '디지털 치료제'를 소재로 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 개최한다.

디지털 치료제란 약물은 아니지만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앱, 게임 등의 소프트웨어(SW)를 말한다.

간담회 주제는 '디지털 치료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묻다'이다.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치료제 선도국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국가 의료시스템의 디지털 치료제 활용 방안, 디지털 치료제 개발의 장애요인 등 국내 디지털 치료제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 진행은 한덕현 교수(중앙대학교병원)가 맡고, 김규동 연구위원(보험연구원), 박주호 대표(눅스바이오), 이소정 변호사(보건의료데이터 심의위원), 임정호 본부장(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대담에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크리스 와즈덴 HappifyDTx 대표, 데브라 라이젠탈 Freespira 창립CEO가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한다.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네이버 TV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채널(tv.naver.com/kinternetorg)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진공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추석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전에는 전국 전통시장 300여 곳과 온라인 쇼핑몰 10여 곳이 참여한다.

네이버 '동네시장장보기', 모바일 앱 '놀러와요 시장', '위메프' 등에서는 1만원 이상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하면 무료로 배송한다.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나 쇼핑몰 포인트도 지급한다.

'온누리전통시장', '위메프오' 등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최대 68% 할인된 가격에 전통시장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을 판매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62.99 (-24.43)
↓	코스닥	1037.22 (-17.21)
↑	금리 (국고채 3년)	1.489 (+0.025)
↑	환율 (USD)	1166.70 (+8.90)